

월간 실적보고

2019.02

Summary of 2019 Feb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+0.8% YoY**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+3.4% YoY**

- 패키지 **+4.1%** / 티켓 **+2.5% YOY**

(14.1만명 / 10.1만명)

3.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(YoY)

- 유럽 **+46.1%** 중국 **+33.3%** 동남아 **+8.1%** 미주 **+7.1%**

- 남태 **-12.7%** 일본 **-24.5%**

4. 예약률 (YoY)

- 3월 **-4.2%** 4월 **+4.4%** 5월 **+2.5%**

2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YoY +0.8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YoY +3.4%, 송객인원 24.2만명

패키지 인원 YoY +4.1%, 14.1만명. 지난해 2월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비교적 낮은 기저(Low Base) 형성.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 하였고 ASP 또한 성장(YoY).

티켓 인원 YoY +2.5%, 10.1만명.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낮은 기저(Low Base)형성. 최근 3개월 연속 송출객 10만명 이상 기록.

2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9	140,962	100,728	241,690
2018	135,413	98,254	233,667
YOY	+4.1	+2.5	+3.4

패키지 YoY : 2018년 12월 -11.3% → 2019년 1월 -15.7% → 2019년 2월 +4.1%

티켓 YoY : 2018년 12월 +3.4% → 2019년 1월 -9.3% → 2019년 2월 +2.5%

총송객 YoY : 2018년 12월 -4.7% → 2019년 1월 -12.9% → 2019년 2월 +3.4%

지역별 성장 (YoY)

유럽 +46.1% 중국 +33.3% 동남아 +8.1% 미주 +7.1% 남태 -12.6% 일본 -24.4%

유럽 +46.1%, 최근 7개월 동안 지속적 성장 기록(평균 성장률 +19.2%). 전체 지역 중 가장 성장세 뚜렷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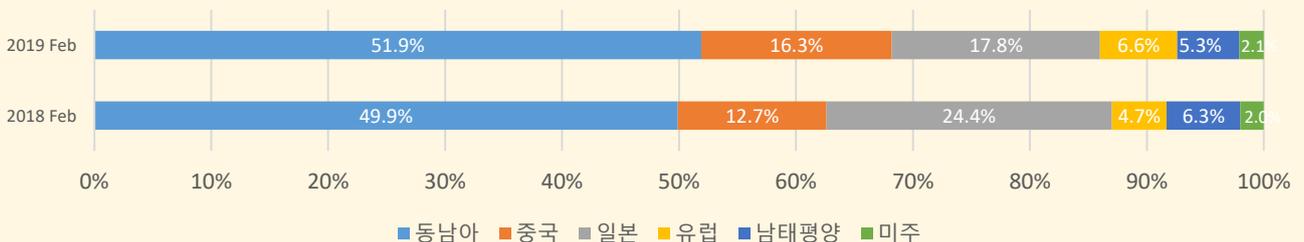
중국 +33.3%, 2018년 4월부터 11개월간 성장 지속(평균 성장률 +36.5%).

동남아 +8.1%, 전년 낮은 기저(Low Base)의 영향. 동남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며 동남아 전체 지역 성장을 견인.

미주 +7.1%, 13개월만에 플러스 성장 기록. 하와이 자연재해 이슈 Fade out 및 노선 공급 재개 영향.

남태 -12.7%, 일본 -24.5%, 두 지역 모두 전월(2019년 1월) 성장률 대비 약 +10%p씩 개선. 그러나 2월 말 괌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결항과 1월 말 일본 인플루엔자 이슈 등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9년 3월	19년 4월	19년 5월
예약률	-4.2	+4.4	+2.5

* 2019.02.28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/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(YoY)

2019년 3월. 직전월 발표한 예약률(-9.8%) 대비 개선. 예약시점과 출발시점의 차이가 짧은 근거리지역 특히, 일본지역의 수요회복이 성장 여부의 관건.

2019년 4월, 5월.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리 수 성장(평균 +17.6%)하며 4월, 5월 모두 비교적 높은 기저(High Base) 부담. 4월은 직전월 발표한 예약률 대비 개선. 5월은 플러스 예약률로 시작.

최근 발표된 1월 시장 총출국자수(승무원제외)는 YoY +1% 증가에 그치며 아직 여행수요 회복기에 들어서지 못함. 모두투어 1분기는 유럽과 중국에서 큰 성장성을 보일 전망이지만, 1분기까지는 시장 여행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. 반면, 전년 4월과 5월은 각각 YoY+14.3%, +18.1% 성장으로 비교적 높은 기저(High Base)가 있음에도 2019년 4월, 5월 예약률이 플러스로 시작하며 수요 회복 기대.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연수요의 출현과 일본지역 수요 회복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.